

현안과제연구

Issue Report

2015. 07. 14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및 활용방안 연구

김경태, 임형빈

충남연구원 문화관광디자인연구부 책임연구원, kimki@cni.re.kr

충남연구원 지역도시연구부 책임연구원, hbyim@cni.re.kr

본 연구의 목적은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유네스코 등재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임.

요약

CONTENTS

< 요약 >

1. 세계유산 등재 개요 및 의의
2. 유네스코 등재 경제파급효과
3. 활성화 방안
4. 결론 및 정책제언

-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의의는
 - 백제역사유적의 격이 크게 격상되었으며, 이는 공주, 부여, 익산은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로서의 위상을 가지게 됨.
 - 지역의 브랜드 격상은 찾아가고 싶은 도시로 세계인에게 각인되어 세계문화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지역 사회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임
-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경제적파급효과는
 - 관광객수는 20~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9.4만명에서 44.2만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관광객 지출 지역경제 효과는 20% 증가시 전국적으로 생산유발 효과는 442~664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31~196억원, 고용유발효과는 614~920명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활성화 방안으로는
 - 유적지 주변 환경정비 사업 추진, 관광 편의시설 마련, 관광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 수립, 통합 관광 시스템 구축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음.
-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자세로 유적지구를 관리해야 되며, 특히 6년에 한번씩 유네스코에 보고를 하게 되어있는데, 세계역사문화 유산지구는 원형보존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선행되어야 함.
- 또한 활용측면에서 관광객 수용을 위한 시설 마련과 방문객들에게 백제역사문화를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함.

1. 개요

- 유산명 : 백제역사유적지구(공주부여·익산)
- 대상 지역(8개소)
 - 공주(2개소) : 공산성, 송산리 고분군
 - 부여(4개소) :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능산리 고분군, 정림사지, 나성
 - 익산(2개소) : 왕궁리 유적, 미륵사지
- 등재기준 : 유네스코 등재기준 (ii), (iii) 충족
 - (ii) 특정 기간·지역 내 인류 가치의 중요한 교류의 증거 : 백제역사 유적지구의 고고학 유적과 건축물은 한국, 중국, 일본의 고대 동아시아 왕국들 사이의 교류를 보여주며, 그 교류의 결과로 나타난 건축기술의 발전과 불교의 확산을 보여주는 유산임
 - (iii) 문화적 전통 또는 문명에 관한 독보적이거나 특출한 증거 : 백제역사 유적지구의 수도 입지 선정을 통해 백제의 역사를, 불교 사찰을 통해 백제의 내세관과 종교를, 성과와 건축물의 하부구조를 통해 백제의 독특한 건축기술을, 고분과 석탑을 통해 백제의 예술미를 찾아볼 수 있음. 백제역사 유적지구는 사라져 간 백제 문화와 역사의 뛰어난 증거임

2. 추진 경과

- ‘공주부여역사유적지구’ , ‘익산역사유적지구’ 잠정목록 등재 : 2010. 1월
-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등재추진단 설립 : 2012. 5월
- 등재신청서 작성 : 2012. 7월~2014. 1월

-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 확정 : 2013. 9월
- 등재신청서 유네스코 제출 : 2014. 1월
- ICOMOS 현지 실사 : 2014. 9월
- ICOMOS 추가자료 요청 및 답변 : 2014. 9월~2015. 4월
- ICOMOS 평가보고서 당사국 송부(등재권고) : 2015. 5. 4.
- 세계유산 등재 : 2015. 7. 4(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 / 독일 본)

3.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 의의

- 이번 등재는 백제 유산을 아끼고 사랑하고 잘 보존하고 이를 세계에 알리려는 5개 지자체와 시도민과 시군민의 의지가 이루어낸 쾌거라고 할 수 있음
- 지역을 달리하고, 문화를 달리하는 5개 지자체가 백제 유산을 중심으로 하나로 모였다는 것이 또 하나의 성과
- 앞으로 세계유산의 등재는 연속유산으로 등재되는 것이 대세로 다른 지자체에서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때 백제역사유적지구는 이정표가 될 것임
- 세계유산이 되면 유산의 격이 크게 격상되기 마련이며, 이는 유산이 위치한 지역민들로 하여금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잘 관리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게 함
-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이 됨으로써 공주, 부여, 익산은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로서의 위상을 가지게 됨
- 공주, 부여, 익산의 브랜드 격상은 찾아가고 싶은 도시로 세계인에게 각인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이 유산을 보기 위해 오는 세계문화관광 명소가 될 것임
- 이는 지역 사회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을 줄 것임
-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이제 세계유산이 됨으로써 보다 체계적으로 이 유산을 관리하고, 보존하고, 연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
- 백제역사유적지구는 세계유산이라는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됨으로써 유산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됨
- 백제 유산이 이번에 세계유산에 등재됨으로써 삼국 문화 모두가 명실상부한 세계유산이 되었다. 이는 삼국 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린 것임

1. 분석의 개요

- 본 분석은 백제 고도인 공주시와 부여군의 유네스코 등재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를 분석함
- 이때 지역경제 효과는 등재 이후 관광객 증가가 지역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
- 국내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등재 지역의 경우 대부분 등재 전보다 등재 후 관광객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가 비율 40~60%정도인 것으로 나타남((재)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사업단, 2014)
- 본 분석에서는 관광객 수의 증가 비율을 공주시와 부여군 두 지역임을 감안하여 기존 연구의 절반인 20%가 증가되는 경우와 30%가 증가되는 것을 가정하여 효과를 분석함
- 관광객 증가 효과는 유네스코 등재 전의 관광객 수에 비하여 증가되는 관광객 수이며, 이들이 지출하는 비용에 따른 효과를 분석함
- 관광객 수요 추정은 기존 분석된 자료인 백제역사유적지구 물리적 관광압력 평가 및 관리계획(2014)에서 분석된 관광객 추정 결과를 활용함
- 관광객 지출비용의 경우 국민여행 실태조사(2012) 자료를 활용함

2. 관광객 현황 및 수요추정

1) 관광객 현황

- 최근 4년간(2008~2012년) 백제유적지를 방문한 관광객 수는 평균 147만명 정도로 나타남

- 공주의 백제유적 관광객은 매년 평균 546,731명, 부여의 관광객은 평균 1,473,510명 임

[표 1] 유적별 연평균 방문객 현황 종합(2008~2012년)

(단위: 명)

구 분		최소값	평균값	최대값
공주	공산성	203,925	251,891	283,356
	송산리고분군	377,082	426,218	450,786
	소계	508,007	678,109	734,142
부여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536,564	546,731	567,067
	정림사지	168,506	168,924	169,760
	능산리고분군 및 나성	78,615	79,746	80,877
	소계	783,685	795,401	817,704
총 계		1,364,692	1,473,510	1,551,846

주) (재)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사업단(2014), 백제역사유적지구 물리적 관광압력 평가 및 관리계획

2) 관광객 수요추정

- 시나리오별 관광객 수요증가는 다음 표와 같으며, 본 분석에서 가정한 관광객 증가분인 20~30% 증가시 관광객 수는 176~191만명으로 나타남

[표 2] 평균값 적용시 시나리오별 관광수요 전망

(단위: 명)

구 분	관광객 수 증가율 시나리오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공산성	302,269	327,458	352,648	377,837	403,026	428,215	453,404	478,593	503,782
송산리고분군	511,461	554,083	596,705	639,327	681,948	724,570	767,192	809,814	852,435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656,078	710,751	765,424	820,097	874,770	929,443	984,117	1,038,790	1,093,463
정림사지	202,709	219,601	236,494	253,386	270,278	287,171	304,063	320,956	337,848
능산리고분군 및 나성	95,695	103,670	111,645	119,619	127,594	135,569	143,543	151,518	159,492
계	1,768,212	1,915,563	2,062,916	2,210,266	2,357,616	2,504,968	2,652,319	2,799,671	2,947,020

주) (재)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사업단(2014), 백제역사유적지구 물리적 관광압력 평가 및 관리계획

3) 관광객 수요 증가

- 본 분석에서 제시되는 지역경제 효과는 등재 전 평균 관광객 수에서 등재 후 증가되는 관광객들이 지출하는 지출비용의 효과를 분석함
- 관광객 수 증가율이 20%인 경우 관광객 수는 29.4만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가율이 30%인 경우 44.2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3] 시나리오별 관광객 수요 증가분

(단위: 명)

구분	관광객 수 증가율 시나리오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공산성	50,378	75,567	100,757	125,946	151,135	176,324	201,513	226,702	251,891
송산리고분군	85,243	127,865	170,487	213,109	255,730	298,352	340,974	383,596	426,217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109,347	164,020	218,693	273,366	328,039	382,712	437,386	492,059	546,732
정림사지	33,785	50,677	67,570	84,462	101,354	118,247	135,139	152,032	168,924
능산리고분군 및 나성	15,949	23,924	31,899	39,873	47,848	55,823	63,797	71,772	79,746
총계	294,702	442,053	589,406	736,756	884,106	1,031,458	1,178,809	1,326,161	1,473,510

3. 관광객 지출 비용

1)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액(2012년 국민여행 실태조사 결과)

- 1인 평균 여행 지출액은 551,457원으로 이 금액은 1년 동안 숙박, 당일 여행 지출 비용임
- 1년 동안 1인 평균 여행 일수는 총 8.43일로 숙박 5.63일, 당일 2.80일로 나타남
- 1인 여행 1회 평균 지출비용은 65,416원임

[표 4] 관광객 지출비용

구분	전체	숙박	당일
1인 평균 여행 지출액(원, A)	551,457	364,514	186,943
1인 평균여행일수(일, B)	8.43	5.63	2.80
1인 여행시 평균 지출액(원, C=A/B)	65,416	64,744	66,765

주: 문화체육관광부(2013), 2012년 국민여행 실태조사.

2) 백제고도 방문 관광객 지출비용 산출

- 관광객 수가 20% 증가시 관광객 지출 금액은 19,278백만원, 30% 증가시 28,917백만원으로 나타남

[표 5] 시나리오별 관광객 지출액

구분		관광객 수요 증가	지출비용(원)	총 지출액(백만원)
관광객 수	20% 증가시	294,702	65,416	19,278
	30% 증가시	442,053		28,917

4. 관광객 지출의 지역경제 효과

1) 관광객 20% 증가시

- 관광객은 294천명이 증가하며 증가된 관광객들이 지출하는 금액은 192억으로 나타남
- 이에 따른 충남(공주, 부여)지역은 286억원의 생산유발, 131~196억원의 부가가치 증가, 528~792명의 고용증가 효과 발생
- 우리나라 전 지역에 발생하는 생산유발효과는 442~664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31~196억원, 고용유발효과는 614~920명인 것으로 나타났음

2) 관광객 30% 증가시

- 관광객은 442천명이 증가하며 증가된 관광객들이 지출하는 금액은 289억으로 나타남
- 이에 따른 충남(공주, 부여)지역은 430억원의 생산유발, 196억원의 부가가치 증가, 792명의 고용증가 효과 발생
- 우리나라 전 지역에 발생하는 생산유발효과는 664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96억원, 고용유발효과는 920명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6] 관광객 지출의 지역경제 효과

(단위: 억원, 명)

구 분			관광객 증가 효과	
			관광객 20% 증가시	관광객 30% 증가시
관광객 지출금액			192	289
파급 효과	생산 유발효과	충남(공주, 부여)지역	286	430
		기타지역	156	234
		전국	442	664
	부가가치 유발효과	충남(공주, 부여)지역	131	196
		기타지역	61	93
		전국	192	289
	고용 유발효과	충남(공주, 부여)지역	528	792
		기타지역	86	128
		전국	614	920

주1: 관광객 효과는 관광객들의 지출에 따른 효과임

1. 유적지 주변 환경정비 사업

- 백제역사유적지구는 신청유산구역, 문화재지정구역 및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완충구역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신청유산구역은 주변 사유지 매입을 통한 원형보존과 주변 정비가 필요
- 백제역사유적지구가 단순한 점적단위의 문화재 차원에서 벗어나 단위 유산을 포함하는 지구로 설정되어 있는 점과 공주와 부여의 경우에는 문화재가 도심에 입지해 있는 점들을 감안해 볼 때 역사지구는 곧 역사도시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사료됨
- 역사도시의 보존과 도시경관과 관련하여 지난 2011년 11월 제17차 이코모스(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채택된 발레타 원칙에서 제시한 주요내용을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역사도시에 건립되는 그 지역의 역사적 가치와 그 환경을 존중해야 한다. 이것은 도시의 연속성을 살아있게 한다.
 - 역사도시의 건축물은 그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공간적, 시간적, 무형적, 기능적 측면에서 적절히 수용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 현대 건축물은 역사지구의 공간구성과 부합되어야 하고 그것의 전통적 형태특성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지역의 역사적 가치와 정신을 수용하는 창조성은 허용되어야 한다.
- 이를 백제역사유적지구에 적용해 본다면, 세계유산구역과 인접한 도심지 건축경관은 백제문화유산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도록 공간적, 시각적으로 디자인되어야 하며, 역사적 맥락을 수용한 창조적인 건축물 또한 허용하여 백제왕도

- 로서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게 경관을 형성해야 된다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유적지구와 인접한 지역은 보존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민간 소유 토지 확보를 통한 유적지구 보존 정비가 우선되어야 되고 주변 도심지역은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백제왕도서의 경관 형성을 위한 정비작업 추진이 필요함

2. 관광 편의시설

1) 안내시설

- 먼저 안내판의 경우 역사유적지구 내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나타내는 사인물이 들어가는 안내판이 새로 설치될 것임
- 설명 안내판은 기존 학술적인 용어보다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활용한 설명판 설치 필요하다.

2) 숙박시설 마련

-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숙박시설 계획을 마련하고 있지만 대형 관광호텔이나 리조트의 유치도 중요하지만 백제 고도로서 분위기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숙박시설 조성이 필요
- 또한 지역주민과의 연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민박마을(공주시 : 69가구, 부여군 : 4개소 150가구)을 활용한 방안 마련
- 교육을 통해 지역주민이 백제고도의 체험을 제공하고 문화재 해설사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

3) 외국인관광객 이용 식당시설 개선

- 식당시설의 경우 외국인 단체객 유치를 위한 대형 식당의 조성
- 외국인을 위한 시설 조성, 영문, 중문, 일본어 메뉴판 등 마련이 필요함
- 외국인 대상 음식 메뉴 개발과 정기적인 점검을 통한 외국인관광객 이용음식점 지정과 교육

3. 관광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 백제역사유적의 대부분은 땅속에 있는 것으로 방문객에게 백제역사유적의 우수성과 가치를 알려 줄 수 있도록 잠자고 있는 유적을 현실에서 깨우는 작업이 필요함
- 관광 콘텐츠 개발에 있어서도 세계문화유산센터에서 인정한 교류라는 부분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
- 이를 활용해 백제역사유적의 숨겨진 가치를 스토리텔링 작업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 또한 전제되어야 할 부분은 현대인이 공감하는 문화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 백제교류사적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콘텐츠로 동아시아 문명교류역사관, 백제촌, 백제향 등의 조성을 통한 볼거리마련
- 과 먹거리 측면에서 지역별·테마별 백제 OUV 음식관광 코스 개발로 왕족밥상, 백제병사음식, 템플푸드, 술익는 백제마을, 장터음식투어 등 음식을 활용한 상품 개발이 필요
- 즐길거리 측면에서 백제브랜드 공연추진단 구성, 백제 브랜드공연 개발이 가능하고 이런 백제콘텐츠 개발을 위한 전문가, 시민단체, 민간사업자로 구성된 조직 구성과 지원이 필요

4.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

- 관광객 유치의 경우 외부요인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현재 사항에서 쉽지만은 않은 작업임
- 금년의 경우 메르스 사태, 세계 경기 침체의 악재 등으로 인해 단기간에는 관광객 유치가 쉽지 않을 전망이며, 특히 일본의 경우 한일 관계 정색, 엔화 약화 등으로 관광객이 많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유치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문화적 동질의식과 공감대를 느낄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전략적 타겟마케팅을 통한 유치 전략 마련이 필요함
- 특히 백제와 한류에 관심이 많은 타겟을 대상으로 한 유치 전략이 필요함

- 일본의 경우 세계유산인 고대 나라의 문화재와 잠정목록에 등재된 아스카 후지하라 지역을 대상으로 한 유치 전략
- 중국인 관광객의 경우 마찬가지로 백제 유적과 관련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 핵심타겟 선정을 통한 전략 마련이 필요한데, 특히 백제와 교류한 중국 남조의 건강성, 북위 낙양성 지역을 대상으로 한 교류 형태의 유치 전략이 필요
- 중국과 일본의 청소년 수학여행 단체 유치 확대, 일본 문화관광객(실버층) 타겟 테마상품개발 등을 통한 유치 활동이 필요함

5. 통합 관광시스템 구축

- 유네스코에서 백제역사유적지구는 개별 유적이 아니라 공주, 부여, 익산을 연속 유적이라는 부분을 높게 평가한 부분이 있어 이제 하나의 백제역사유적이라는 인식이 필요한 부분임
- 현재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단에서 공주,부여,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 관광시스템 구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유적지구 전체의 ‘통합형 관광기반 조성’ , ‘백제문화 브랜드 재구축’ , ‘편리한 관광환경 제공’ , ‘융합관광 콘텐츠 개발’ , ‘국제행사 및 관광교류확대’ 등의 사업의 전개가 필요함
- 또한 현재 각 지자체별로 개최되고 있는 비슷한 소재를 활용한 축제 개최에 있어 통합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백제문화제의 경우 기념이나 의미가 있는 연도에는 예를 들면 백제문화제 70주년이나 세계문화유산 지정 10년 행사에는 공동 개최 등의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의의는
 - 백제역사유적의 격이 크게 격상되었으며, 이는 공주, 부여, 익산은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로서의 위상을 가지게 됨.
 - 지역의 브랜드 격상은 찾아가고 싶은 도시로 세계인에게 각인되어 세계문화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지역 사회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임
-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경제적파급효과는
 - 관광객수는 20~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9.4만명에서 44.2만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관광객 지출 지역경제 효과는 20% 증가시 전국적으로 생산유발효과는 442~664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31~196억원, 고용유발효과는 614~920명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활성화 방안으로는
 - 유적지 주변 환경정비 사업 추진, 관광 편의시설 마련, 관광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 수립, 통합 관광시스템 구축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음.
-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자세로 유적지구를 관리해야 되며, 특히 6년에 한번씩 유네스코에 보고를 하게 되어있는데, 세계역사문화 유산지구는 원형보존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선행되어야 함.
- 또한 활용측면에서 관광객 수용을 위한 시설 마련과 방문객들에게 백제역사문화를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함.

◆ 참고 자료 ◆

- 노중국, 2015, 백제문화유산의 가치와 유네스코 등재 의의, 충남연구원 워크숍 발표자료
- 김규호, 2015, 경주역사유적지구 문화유산 관리 및 활용사례, 충남연구원 워크숍 발표자료
- 백제역사유적 유네스코 통합관리단, 2015,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광시스템구축 계획 수립 연구, 중간보고서